

장백산천지

제 53 호

2007 년 10 월 5 일

금요일

파룬궁 사부님께 보낸 중국 대륙의 추석인사 메시지



지난 2007 년 9 월의 추석을 맞으면서 중국 대륙의 30 여개 성과 자지구, 직할시의 700 여개 지역에서 파룬궁학원들이 명혜망을 통해 축하카드, 시사, 동화 등을 보내어 파룬궁창시인 리홍지선생님께 삼가 명절의 축하를 드렸다.



한국 안양에서 2600 만 중공퇴당을 성원

지난 9 월 16 일 한국 안양에서 한국국민들은 큰 비를 무릅쓰고 2600 만 중공퇴당을 성원하는 집회와 시위행진을 거행했다. (아래 사진) <중공을 해체하자>라고 쓴 프랜카드를 든 행렬이 가장 행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기세 드높은 중공 탈퇴 대물결은 력사의 변천중에서 가장 뛰어난 견종으로 될 것이다.



중국사람들은 어떠한 올림픽운동회가 수요되는가?

중국사람들은 올림픽운동회를 기대하고 있으며 관용, 이해, 우의, 평화, 공정한 올림픽정신이 중국에서 발양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올림픽운동회로 하여금 진정한 중국사회의 자유진보를 촉진시켜 중국민중의 인권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사람들은 물질생활에만 관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고도 다채로운 자유사상, 신앙, 가치, 리념이 있고 기타 민족과 평화공존할 것을 갈망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중공의 당문화로 포장한 강제적이고도 기계적인 <통일단결>이 아니다.

중공의 모든 행위는 곧바로 중국사람들의 기대와 상반되며 올림픽정신에 어긋나며 국제사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중국인권개선, 자유증진과는 전혀 다르다. 2001 년, 중공이 올림픽신청을 성공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중국민중의 기본인권상황은 도리어 더욱 악화되었다. 권리수호인사, 권리수호번호사, 신문기자, 상방민중, 파룬궁학원들의 기본인권은 보편적으로 침해받았고 완전히 짓밟혔다. 중공은 소란, 연금, 구타, 흑형 등 갖은 수단으로 민중을 박해했는바

그중 파룬궁학원에 대한 박해는 더욱 엄중하였고 심지어 파룬궁학원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여 폭리를 얻었다. 국제사회가 입증한바 의하면 박해로 사망한 법륜궁학원이 무려 3030 명이나 된다.

2005 년 내부소식에 의하면 중공의 공안부 부부장 류경(刘京)의 <올림픽운동회전에 파룬궁을 소멸하라.>는 명령이 전국공안부문에 하달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관용, 이해, 우의, 평화, 공정한 올림픽정신에 부합된단 말인가? 중공은 올림픽운동회를 리용하여 중국사람들의 민족감정을 얹매어 놓고 자신의 독재통치를 미화하고 있다.

중공은 중화민족의 원흉으로써 8,000 만의 무고한 중국인을 도살했으며 정신(正信)을 박해했으며 정통문화를 말살했으며 사회도덕을 회멸했으며 생태환경을 파괴했다. 중공은 북경올림픽을 주체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중국사람들의 진정한 정신면모를 전시할 무슨 자격과 능력이 있단 말인가? 답안은 아주 명백한바 중국인들이 수요하는 것은 진정한 중국인들이 올림픽운동회를 주체하는 것이며 중공이 통제하는 올림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간판

뉴욕의 두번째 중국인거리에 붙여있는 <전세계중공퇴출봉사중심> 간판이 유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전세계퇴당봉사중심> 책임자 고대유(高大維)가 말하기를 <이 간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또 공식적으로 공중장소에 퇴당복무중심선전간판을 걸어놓은 것이다. 이는 중국민중의 신심을 북돋아 줄 것이며 더욱 많은 중국과 서방의 민중들에게 정보를 전해줄 것이다.>



당정관원의 퇴당성명

◎ 610 판공실성원의 퇴당성명

금년 8 월에 마문(馬文)은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나는 몹시 부끄럽다. 나는 대륙의 모 현 <610>의 성원으로서 파룬궁박해 운동에서 나쁜짓을 많이 했다. 나는 파룬궁학원들과의 접촉에서 그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나는 공산당과 일체 부속 조직에서 퇴출함을 성명한다.>

◎ 정법(政法)서기의 퇴당성명

산동성 한 로당원은 아래와 같이 퇴당성명을 발표했다. <나는 한 정법서기로서 다년간 당정사업에 종사하면서 오히려 좋은 사람들을 다스렸다. 나는 법륜대법제자의 진상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이 사악한 당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3 퇴하여 평안을 확보하겠다. 금후에 나는 대법을 런마하여 “진선인”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 당위서기의 퇴당

광둥성 모 공장 당위서기 정상귀(鄭祥貴)는 한 친구의 진상이야기를 듣고 퇴당은 자신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중공과 일체 상관 조직에서 퇴출할 것을 결정했다.

◎ 정부관원의 퇴당

정부관원인 왕삼(汪三)은 정치가 부패하고 사회가 문란하며 친한 사람만 임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공산당은 이미 희망이 없음을 느꼈다. 안해, 아들, 딸, 사위는 중공과 그 부속조직에서 퇴출할것을 성명했다.



박해로 세상 뜬 대법제자 위봉거

길림성 동풍현 제 4 중학교 교사인 대법제자 위봉거(魏凤举)는 세번이나 로동교양소에 갇혀 6 년동안 박해를 받았다.매일 17 시간내지 20 시간의 고강도 로동을 시켰으며 밤잠을 자지 못하게 했으며 겨울에는 얼음섞인 물로 몸을 씻게 했으며 전기방망이로 지저 입은 변형되었고 신체는 매우 여위고 약하여 아무 것도 할수 없게 되자 2007 년 4 월 13 일 집으로 돌려보냈다. 석달동안 그의 신체는 회복되지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생활을 자립하지 못했다. 7 월 12 일 오후 4 시 15 분, 그는 중공의 사악한 탄압에 한을 품고 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나이는 47 세밖에 안되었다.



위봉거의 박해받기 전의 젊은 모습



2007 년 7 월 11 일 위봉거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의 사진

일본파룬궁수련생들이 가경림(賈庆林)을 기소

일본 고베에서 진행된 중화상회(華商)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난 2007 년 9 월 12 일 일본에 도착한 중공 정협주석 가경림(賈庆林)은 중화상회대회의 경축날인 14 일, 두명의 일본 파룬궁수련생으로부터 “군체 학살죄”, “흑형죄”, “비방죄”등으로 제소당하였다. 이는 가경림이 4 차례의 해외에서의 법륜공수련생들로부터 받은 공소이다. 그와 함께 제소당한 자로는 중공의 상무부 부장 박희래(薄熙來)도 포함되었다. 가경림, 박희래는 장쩌민(江泽民)이 발동한 전례없는 법륜공수련생들에 대한 대규모의 박해에서 가장 악렬한 동반자의 역할을 하였다.

